

우리아이 안전, 이렇게 지켜요



◇3월11일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1996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1999년 6월 씨랜드 화재 사고,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일상생활에서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까지 잇어가는 것이 바로 안전사고다. 이러한 사고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좋은 안전교육은 현장 체험을 통해 사고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번 집에서 지난 6일 문을 연 '서울시민안전체험관'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 안전학교' 등의 안전 체험학습장은 아이들과 함께 둘러볼 만하다.

서울소방방재본부가 운영하는 서울시민안전체험관(safe119.seoul.go.kr)에서는 소화기 사용법을 익히고 연기가 자욱한 복도를 따라 길을 찾아가는 등 실제 상황과 비슷한 20여 종류의 가상 재난체험을 통해 대처방법을 익힐 수 있다.

우비를 입고 들어가는 풍수해 체험실에서는

가상체험 통해 재난 대처 방법 익혀

프로그램 이용한 인터넷 교육도 한 방법

대형 송풍기와 스프링클러가 초속 10~50m의 바람을 뿜어내고 비를 뿌려 강풍과 폭우가 몰아치는 상황을 연출한다. 일반 가정의 부엌처럼 꾸며진 지진체험실에서는 진도 1에서 7까지의 지진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체험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또는 전화(02-2049-4000)로 방문 3일 전 예약해야 한다.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은 2006년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제2체험관을 여는 등 체험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 안전학교'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기 쉬운 안전사고의 구체적인 사례 및 예방법을 배울 수 있다. 교통 안전, 전기 및 가스안

전, 배란다 추락사고, 사고 발생 때 신고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을 체험 위주로 가르친다.

직접 체험관을 찾지 어렵다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교통, 화재, 가스안전 등 10개의 인터넷 안전학교를 운영하는 '어린이 안전학교'(www.go119.org)에서는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용 프로그램과 교육지침서 등을 다운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본부 김광진 구조구급과장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안전의식이 몸에 배게 돼 위급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며 "주변에서 일어나기 쉬운 안전사고의 대처방법은 부모들이 평소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여수형 기자 snoopy@buddhapia.com

단체명	내용
시민안전체험관(safe119.seoul.go.kr)	화재, 지진, 폭풍우 등의 재난을 체험하면서 대응요령을 익힐 수 있다. (02)2049-4000
어린이 안전학교(www.isafeschool.com)	5~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기 쉬운 안전사고의 구체적인 사례 및 예방법을 배울 수 있다. (02)406-5868
세이프키즈코리아(safekids.or.kr)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과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시험 등을 실시한다. (02)3477-7943
어린이 안전학교(www.go119.org)	어린이 교통질서, 화재, 가스 전기사고, 놀이 안전 교육 및 응급처치법을 제공한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꼬마안전짱(ccoma.redcross.ac.kr)	적십자 간호대학이 운영하며 어린이 사고예방, 아동학대 예방법, 보행안전, 응급처치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안전생활교육회(www.childsafety.or.kr)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시하고 적절한 대처방법을 소개한다.
한국 119소년단(www.young119.or.kr)	'119 소방교실' 등을 운영하며 화재예방교육과 안전교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클릭! 불교 문화상품
www.mahamall.co.kr

관세음보살 양각판

수익금 복지시설 건립기금 사용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 불교 전통의식교육원 연구과정을 수료한 구달 스님의 '관세음보살 양각판'은 앞면에는 관세음보살이, 뒷면에는 발원이 조각되어 있다. 작품 수익금 전액은 시각장애인 위한 복지시설 건립기금으로 사용된다. 값 9만원. (02)732-1520

내 안의 너 안의 나

기도의 효험

"선생님, 기도가 정말 효험이 있는 건가요?"

20대 중반의 아가씨가 손끝으로 안경을 밀어 올리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저는 속으로 답을 생각하며,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아가씨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정직하고 착하지만 생활력이 없는 아버지는 혼자서 가정을 꾸려 본 일이 없이 일생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어머니가 자신의 쪽배에 다섯 식구를 태우고 힘겹게 노를 저어왔는데, 이제는 어머니마저 노를 저어 갈 힘을 잃고 있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 중 누군가가 나서서 어머니가 젖던 노를 대신 저어 갈만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바라보는 가족 모두의 마음은 괴롭다고 했습니다.

슬하에 삼남매를 둔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생을 이끌어 오셨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생을 이끌어 오셨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돼 있는데 하나는 생활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고, 다른 하나는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새가 양 날개를 저어서 하늘을 오르는 것처럼 현실적인 생활과 종교적인 생활을 양립하면서 삶을 이끌어 오셨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서 느끼게 되는 숙연함을 느끼

지만, 출산을 하고 나서도 아이 맡길 데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명문대학 수학과를 나온 어머니는 수학과외를 전문으로 했는데 다행히 반응이 좋아서 하루에 두 팀, 세 팀 아이들을 모아서 그룹과외를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정 살림을 하면서 과외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수입이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새벽이면 늘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고, 시간만 나면 반야심경 사경을 해서 집에는 어머니가 사경한 사경노트가 어머니 키만큼 높게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켜오셨기 때문에 삼남매는 물론 아버지까지도 어머니가 노를 젓는 쪽배를 타고 인생의 항해를 무난히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녀의 가정에 폭풍우가 몰아쳐 가족이 타



어머니 마음속에 불보살님 계십니다

게 된다

이렇게 한 가정의 중심이 되어 살아온 어머니는 어느덧 환갑을 맞이하게 됐는데, 환갑을 맞은 어머니 앞에 가로놓여있는 것은 어머니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채라고 합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자신의 오빠가 신장이 안 좋아서 병원을 드나들게 되었는데 그 때마다 지기 시작한 빚이 다시 빚을 만들면서 커지기 시작해 이제는 어머니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금 갚는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물론 이자 갚는 일마저 힘들게 된 어머니는 사면초가의 어려움 속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고 계신데,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있으면 정말 불보살님이 중생의 고통을 털어주기 위해 애쓰고 계신가요? 하는 의문에 잠기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문에 잠길 수밖에 없는 아가씨의 심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녀 어머니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는 게 좋겠군요. 결혼 직후 남편이 생활인으로서 무능하다는 것을 안 어머니는 자신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과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직장구하는 일이 쉽지 않기도 했

고 있던 쪽배를 난파시킨 것은 딸아들, 그러니까 아가씨의 오빠가 급성 신장염에 걸리고부터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오빠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빠가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가 정신적인 고통에 깊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 오빠가 급성 신장염에 걸리자 어머니는 20여 년간 계속해 오던 과외를 그만 두시고 오빠 치료에 매달리셨어요. 그러면서부터 저희 가정은 뿌리째 흔들리게 되었죠. 이제 어머니는 너무나도 지쳐계세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는데 감당할 수 없는 고통만이 어머니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불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저희 어머니를 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일생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셨는데요."

아가씨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아가씨에게 어떤 답을 해줘야 할까요? 어머니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전생의 업인지도 모르니까, 업이 소멸될 때까지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 고열로 자신의 몸을 녹인 쇠만이 불순물을 건어낼 수 있으니, 불순물이 없어질 때까지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할까요?

化緣 (02)704-3577

제8회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작 (관음종 총무원장상)

불립문자 직지인심 (하)

■不立文字 直指人心

대행 스님께서는 일체 다른 말씀이 없으셨다. 그저 <삶은 고가 아니다> 책을 구해 남편에게 갖다주라는 말씀뿐이었다.

책을 사들고 경찰서로 가 남편을 면회했다. 남편과 내가 마주선 공간은 좁은데다 두꺼운 벽으로 칸이 막혀있었다. 순간 안과 밖의 경계는 어떤 차이가 있고, 왜 마주보고 서 있어야 했는지, 생과 사, 선과 악 모든 것이 돌 아닌 도리인 것을... 그런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남편의 지시를 듣고 구경에 들러 상의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려 했으나 귀찮다는 눈치를 쏘 뿐 우리 편은 없었다. 이미 신문에도 기사화됐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에도 남편 면회를 했는데 이미 남편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다. 죄수들이 신는 흰 고무신을 신고 손은 묶여 있었다. 그것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눈물이 마구 나왔다.

집으로 와 통곡을 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가지 않겠지 실낱같은 희망을 품으면서도, 만에 하나 재판에서 실형을 받으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다. 변호사 비용 등 많은 경비가 들텐데, 실형을 받으면 퇴직금

도 반으로 줄고, 아직 아이들 세 명 모두 결혼 전인데 어떻게 살아가나 살 길이 막막해진 나는 울부짖었다. 그러다가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받자 누가 대신 받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도 대신 받아줄 수 없다'는 가르침이 생각났다. 과거세 지은 업이 드러나 공부시키는 것이니 속지 말고 퇴직어놓고 녹이라는 큰스님의 법문이 떠오르면서 가까스로 진정이 되었다.

그때 이는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대뜸 "축하한다"고 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물으니 "남편에 관한 업무일지를 보고 재지휘 명령이 떨어져(남편이)석방되게 되었다. 어디에 백을 쓰신 거냐?"고 했다. 검사가 서류를 검토한 뒤 내리는 권한으로 조사기록이 되돌아와 다시 조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단다. 그 순간 '부처님백(?)은 이렇게 광대무변, 무시무종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계에 두루 하신 일체제불 보살님, 대행 큰스님, 주지스님, 검사님, 선망 부모님, 일체 한마음 주인공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를 큰 소리로 외쳤다.

남편에게서도 풀려났다는 전화가 왔다. 당시 대진 법조계 비리와 전 대법원장

김동난(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부인 옷포비사건으로 나라안인 운동 시 끄러워 더욱 힘들었다. 1년 6개월간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담당 검사가 수시로 바뀌고 1심 재판장까지도 바뀌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때마다 난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했다.

재판중 겪었던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다

큰스님 법문 떠올린 순간 석방소식 들어

재판중 겪었던 고통, 나를 성숙시킨 큰 공부

주장자 확실히 쥐면 한마음되는 도리 깨달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나를 성숙시킨 큰 공부였던 것 같다. 당시 세월이 왜 그리 더디 가는지... 어디를 가도 편지 않았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몰랐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이 흘렀다. 남편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해결했고 생활비는 딸아이 결혼비용 모아놓은 것으로 충당했다. 금전적인 어려

움 보다는 난 남편의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일념에 기도처를 찾아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남편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추징금 1천5백만원의 실형을 받았다. 주위에서 도저히 이기기 어렵다고 했지만 우리는 항소를 했다. 그동안 아침에불은 물론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마음을 다해 참회를 했다. 천도재도 지냈다.

항소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2000년 5월, 최종 판결이 나는 날이었다. 남편은 결

게 됐느냐고, 감옥에 들어갈 사람은 너라며 큰 소리로 야단을 치자 다행히 김택수는, 뇌물이 아니라 보증 서준 대출금 돌려주었다고 정직하게 진술을 했다고 한다.

판결은 집행유예로 2년에 추징금 3백만원으로 매달 지어졌다. 남편은 공직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으나 본청인 시청에서 1심 판결 결과로 근무정지 6개월을 받았다. 6개월 후 남편은 새 부서로 발령 받아 지금

까지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큰 사건을 겪게 되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 주장자만 확실히 쥐고 간다면 주인공은 한마음이 되어 잘 돌아간다는 진리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자비를 베풀어주시는 부처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불법을 더 열심히 배우고 정진하겠다고 늘 다짐하고 있다.(끝)



그림·김홍인